

1. 인니정부, 소금 수입세 인상 결정

○ 주요내용

- 리잘 라물리 해양조정부 장관은 9월 21일, 인니 정부가 염전을 운영하는 현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금 수입 관세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수시 뿌지아스뚜띠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역부에 기존의 한도량에 기초한 수입 체계를 관세 기반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세금은 1kg당 150~200루피아로 예상한다고 밝힘.
- 리잘 라물리 해양조정부 장관은 최근 7개의 인도네시아 기업이 국내 소금 시장을 카르텔(기업 연합)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며, 수입 소금으로 높은 이익을 남기고 현지 소금 제공업자에게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함.
- 토마스 림봉 무역부 장관은 소금 공급과 가격 형성에 소수 독점이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 소금 시장 기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소금 시장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가 언제 수입세를 과세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인도네시아 국내 소금 생산은 날씨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량과 품질이 일정하지 못함.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가 소비한 소금량은 360만 톤으로 그 중 220만 톤이 수입이 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국내 소금 생산량 33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2015년 9월 23일, 자카르타경제신문

1.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 및 유제품/음료 분류기준 관련 규정

Q: 인도네시아의 유제품 시장 및 유제품 분류기준 관련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지방 함유량에 따른 유제품 및 음료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우선,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유제품으로 국내제품 ±1,822개, 수입제품 ±869개가 있습니다. (2015년 6월 11일 기준)

-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평균 우유 소비량은 하루 1인당 3.6ml 또는 4.9그램(우유분말형태)으로 매우 낮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유제품은 연유제품으로 전체 소비량의 6.4%를 차지합니다.
- 관련규정으로는 식료품 분류에 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 청장령 2015년 제1호(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5 Tentang Kategori Pangan)가 있으며, 카테고리 01.1에서 원유를 원료로 한 식료품 분류에 대해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참고

01.0: 카테고리 02.0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유제품

01.1: 우유 및 우유를 원료로 한 음료

01.2: 발효 우유 및 Produk Susu Hasil Hidrolisa Enzim Renin (카테고리 01.1.2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01.3: 연유 및 이와 유사한 것

01.4: 생크림 및 동종제품

01.5: 우유분말가루, 생크림분말가루 및 이와 유사한 것

01.6: 치즈 및 이와 유사한 것

01.7: 우유를 원료로 한 디저트 식품 (예, 푸딩, 요거트, 과일첨가 요거트)

01.8: 유장* 및 유장 제품 (유장 치즈 제외)

*유장: 젖 성분에서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빼고 남은 맑은 액체

- 유제품으로 우유, 생크림, 버터밀크, 치즈, 유장 등이 있으며, 유제품은 젖소, 물소, 말, 염소, 양 등 가축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원료로 합니다.

- 보통, 우유를 함유하는 음료는 우유 함유량이 5% 미만으로 음료로 분류됩니다.
- 일반적인 유제품 분류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제품	유지방 함량(%)	탈지유 총 밀도(%)	기타
일반 우유	3% 초과	8% 초과	
무지방 우유/탈지우유	1.25% 미만		단백질 함량 2.7% 미만
저지방 우유	1.25~3% 미만		단백질 함량 2.7% 초과
합성착향료 성분을 함유한 우유	2% 초과	12% 초과	
우유성분을 함유한 음료	0.3% 초과		
요거트	3% 초과	8% 초과	젖산 0.9% 초과
저지방 요거트	1.25~3% 미만	8% 초과	젖산 0.9% 초과
무지방 요거트	1.25% 초과	8% 초과	젖산 0.9% 초과
연유	8% 초과		
크리머 음료(非우유)-액상형태	3.25% 초과	8.25% 미만	
크리머 음료(非우유)-분말형태	26% 초과		액상함량 5% 미만
휘핑크림	35% 초과		

* 출처:

-인도네시아 식약청 공식홈페이지 (www.pom.go.id)

-<http://www.foodreview.co.id/baru/Seminar%20Foodreview,%202011%20Juni%202015.pdf>

-http://www.inmetro.gov.br/barreirastecnicas/pontofocal/..%5Cpontofocal%5Ctextos%5Cregulamentos%5CIDN_101.pdf

-http://foodreview.co.id/preview.php?view2&id=5668917#.VhKdD_ntmko

III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로 대체함.

1. 해양수산부, 수입 진주 통관 전면 금지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 기준에 미달한 수입 진주에 대해 통관을 금지시킴.
- 해당 당국은 해당 제품이 SNI 기준미달로 통관이 거절되었으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전 제품은 SNI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수입진주품질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령 2013년 제8호의 개정령인 해양수산부 장관령 2014년 제44호’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
- 해당 당국은 정정당당한 사업 경쟁에 있어, 해당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준 미달의 수입품을 통제하기 위해 SNI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 밝힘.

- 또한, 국산품 품질 향상, 국산품 판매 증진 및 국민들의 국산품 애용을 장려시켜야 한다고 밝힘.

* 출처: 2015년 10월 12일, www.pikiran-rakyat.com